언어 영역

시간 : 80 분
점수 : 100 점

종로학평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연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선율현과 개방현의 음색
② 현(絃)의 수와 각각의 명칭
③ 현(絃)의 재질과 각 현의 굵기
④ 선율현과 개방현의 연주 방법 차이
⑤ 개방현의 수가 선율현보다 많은 이유

2. 〈물음〉 대화에서 나타난 부하 사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떤 일에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상사에게 부탁하고 있다.
②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는 것을 상사에게 조언하고 있다.
③ 자신을 무시하는 상사에게 자신의 판단을 믿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④ 상사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회사 전체의 결정이 먼저임을 밝히고 있다.
⑤ 처음에 뜻한 바대로 끝까지 추진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다.

3. 〈물음〉 수업에서 예로 들고 있는 농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딸기와 파를 한 이랑씩 교대로 심으면, 파는 딸기의 생장에 치명적인 곰팡이 병을 예방해 준다.
② 감자를 캔 밭에 감자의 잎이나 줄기가 남은 상태에서 생강을 파종하면, 생강은 씨도 맺히지 않는다.
③ 가을에 배추를 수확한 밭에 월동 시금치를 심으면, 두 작물 간에 피해는 전혀 없이 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④ 당근과 양파를 한 이랑에 나란히 심으면, 당근은 양파의 굴파리를 양파는 당근의 도둑나방을 각각 쫓아 준다.
⑤ 인삼 밭에 메추라기를 풀어 놓으면, 인삼 밭의 해충은 메추라기가 잡아먹고 메추라기는 안정된 서식처를 얻는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이 토론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배경을 언급하였다.	····· ①
↓		
김 회장(남)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며 주장을 전개하였다.	····· ②
↓		
이 교수(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③
↓		
김 회장(남)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전개하였다.	····· ④
↓		
이 교수(여)	문제점을 부각하며 부정적인 미래상을 전망하였다.	····· ⑤

5. 〈물음〉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현대인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한다.
②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가수를 소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④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방송사와 시청자의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에 착안하여 '삶의 자세'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무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나무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나무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숲을 이루면서 나무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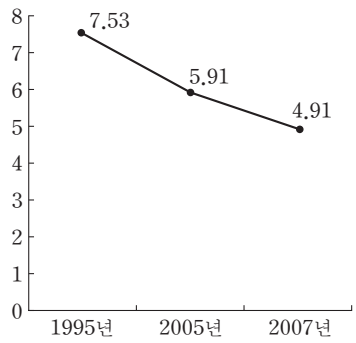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자라는 나무는 우리에게 휴식과 위안을 줍니다. 더위에 지친 이에게는 그늘을 제공해 주고, 배고픈 이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일수록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는 나무는 모두의 경탄을 자아내지요. 무엇보다 나무의 위대함은 겨울을 견뎌 내는 힘에 있습니다. 잎을 떨어뜨리고 벌거벗은 채 겨울을 나지만 봄에는 다시 꽃을 피웁니다.

①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 내야 한다.
②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③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④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⑤ 타인의 삶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7.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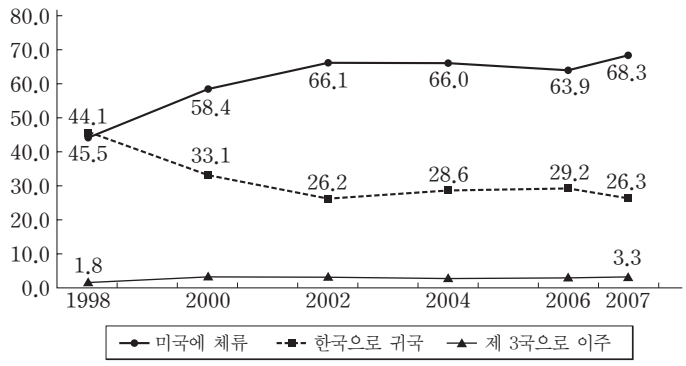
㈎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



* '두뇌 유출 지수'란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 경향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두뇌 유출 경향이 약하다.

– 국제 경영 개발원

㈏ 미국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의 이동 현황



–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 신문 기사

미국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박사 학위 취득자들은 삶의 질(교육 여건, 연구 환경 등)이 더 좋은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다. 한국에서 능력을 활용하며 살고 싶지만 취업이 어렵고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취업과 진로에 관련한 한국의 상황이 마땅치 않아 미국에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박사 학위 취득자 인터뷰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국외로 나가려는 이공계 박사는 30~40대가 가장 많아요. 그들이 국내에 남지 않는 이유는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성취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 재직자의 경우도 강의 부담과 연구 시간의 부족으로 일관성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현상을 줄이려면 기업에서는 고급 인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하고 정부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① ㈎와 ㈏를 활용하여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와 ㈑를 활용하여 국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③ ㈏와 ㈐를 활용하여 미국 박사 학위자 중에서 귀국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에서의 취업과 진로의 불투명에 기인함을 지적한다.
④ ㈐와 ㈑를 활용하여 고급 인력의 채용과 그들의 능력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⑤ ㈎~㈑를 활용하여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8. 〈보기〉의 개요를 수정 · 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문 : 우리 사회의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자.

Ⅰ. 서론 : 노령 인구 증가 전망

Ⅱ. 본론
1. 대책의 필요성
가. 사회적 차원의 필요성
(1) 경기 불황으로 인한 복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 ····· ㉠
(2) 노령 인구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3)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증대
나.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
(1) 사회 변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2) 노령 인구의 여가 활용 시간 부족 ····· ㉡
2. 대책의 장애 요인
가. 사회적 차원의 장애 요인
(1) 노령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대책 필요성 대두
(2)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령 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 증가
나. 개인적 차원의 장애 요인
(1)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노후 생활 대비 미흡
(2) 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의 증가 ····· ㉢
3.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가. 사회적 차원의 대책 ····· ㉣
(1) 노령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2) 노령 인구의 생활 및 건강 관리 제도 수립
나. 개인적 차원의 대책
(1) 노후 생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인 관계 형성 노력 및 건강 관리
(2) 저축 및 연금 등을 통한 경제적 차원의 노후 준비

Ⅲ. 결론 : 노령 인구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 ㉤

①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Ⅱ-2-가-(1)'과 위치를 바꾼다.
②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활 대비의 필요성 증대'로 바꾼다.
③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아실현을 위한 조기 퇴직자의 증가'로 고친다.
④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복지 예산의 확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로 바꾼다.

9. 〈보기〉를 고려하여 안내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문제 상황〉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안내문 작성 조건〉
- 문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작성할 것
- 경고나 위협의 어조가 아닌 완곡한 어조를 사용할 것
- 대구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①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산불 발생이 우려됩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② 아름다운 산, 우리만 누리겠습니까?
오염된 자연, 후손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산과 강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 주세요.
③ 자연을 사랑해서 이곳을 찾은 여러분
산은 우리가 조심스레 지켜야 할 쉼터입니다.
우리의 부주의가 산을 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신중함이 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④ 산의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산의 나무는 무엇을 양분 삼아 자랄까요?
자연물은 자연 속에 자랄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⑤ 진정으로 산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산을 산불에서 지켜 주세요.
산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10. 〈보기〉는 과학 보고서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양의 경우 별자리의 이름은 별자리 모양에 따라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동물 또는 당시 이용하던 물건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한다. 서양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우주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별이 둘러싸고 있고, 그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움직여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황도라고 한다.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황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황도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을 나누어 황도 12궁이라 불렀다. ㉢나는 이러한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보며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습관이 있다.

한편 동양 사람들은 별자리에 대한 생각이 서양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하늘에도 왕이 사는 궁궐이 있고, 왕과 신하들이 모여 나랏일을 상의하는 조정이 있고, 일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시장이 있다고 여겼다. ㉣동양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늘도 땅과 같이 중앙을 황제가 다스리고 여러 제후들이 하늘을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다고 여겼다. 즉 동양의 별자리에는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야 한다.

① ㉠은 문맥을 고려할 때 '따다'가 어울리므로 '따서'로 고친다.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꾼다.
③ ㉢은 문단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④ ㉣은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⑤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담겨 있다'로 고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선어말 어미 '-겠-'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하였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다.
ㄴ. 은수라면 그 일은 벌써 했겠다.
ㄷ. 이곳은 백 명은 수용할 수 있겠다.
ㄹ. 숙제를 마치는 대로 너희들을 따라 가겠다.

① ㄱ은 ㄴ과 달리 미래 시제로 사용되었군.
② ㄱ과 ㄴ은 ㄷ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군.
③ ㄴ과 ㄷ은 미지(未知)의 사실에 대해 추정하고 있군.
④ ㄷ은 ㄹ과 달리 미래 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군.
⑤ ㄹ은 ㄱ과 달리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군.

12.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기〉의 표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손발'(명사+명사), '늦더위'(용언의 어근+형용사)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어근(실질 형태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 이 중 '손발'처럼 두 어근이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것을 대등 합성어라 한다. 대등 합성어는 어근이 결합할 때 어근의 모양이 바뀌면서 결합하는 경우와 어근의 모양 그대로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또, 대등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의 뜻이 단어가 결합하기 이전에 어근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뜻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와 어근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등 합성어의 유형		
유형 / 용례	모양	뜻
A	바뀌지 않음	바뀜
B	바뀜	바뀌지 않음
C	바뀌지 않음	바뀌지 않음
D	바뀜	바뀜

① '나래는 밤낮 게으름만 피운다.'에서 '밤낮'은 A에 해당한다.
② '고모는 슬하에 오누이를 두고 있다.'에서 '오누이'는 B에 해당한다.
③ '다솔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에서 '물불'은 C에 해당한다.
④ '강혁은 논밭을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냈다.'에서 '논밭'은 C에 해당한다.
⑤ '안팎이 다 직장에 다니는 집은 육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다.'에서 '안팎'은 D에 해당한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나를 울리나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볕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김지하, '새'〉

(다) 하늘을 날아가던 새떼들 푸른 자리에 박혀 버렸다.
눈보라 속을 그 작은 눈으로 껌벅거리며

㉣매운 눈물 흘리며 거기까지 날아갔으나
눈물까지 얼어붙어 앞을 볼 수가 없단다.

어수선한 하늘을 그 작은 날갯짓으로 파닥거리며
가슴 두근거리며 날으고 날으고 날아갔으나
㉤솜털까지 얼어붙어서 이젠 더 날아갈 수가 없단다.

겨울 밤하늘의 별들이여
그렇게도 목메이게 띄워 올렸던 만세 소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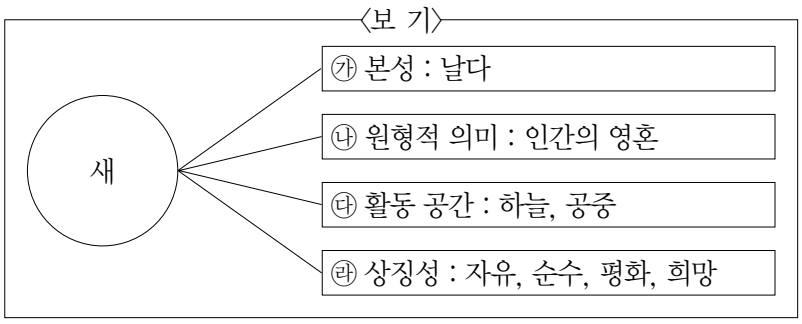
쏟아지려무나 우박이라도
새떼라도 좋다 쏟아지려무나.

〈조태일, '겨울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가 그리는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⑤ 대상이 지닌 속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 〈보기〉는 '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로 보아, (나)의 '새'는 새의 본성을 누리는 존재인 반면 (다)의 '새'는 본성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② ㉯로 보아, (나)의 '죽어 너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 '새'의 원형적 의미를 '인간의 영혼'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③ ㉰로 보아, (나)의 '새'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있지만 (다)의 '새'는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공간에 있어.
④ ㉱로 보아, (가)의 '새'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고 (다)의 '새'는 순수한 삶에 대한 염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⑤ ㉮~㉱로 보아, (가)~(다)는 '새'를 통해 화자나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1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⑤ 대조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현대 문명의 파괴적이고 비정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③ ㉢ : 고통을 겪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 :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새들의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⑤ ㉤ : 극한 상황에서 깨닫게 된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통제 이론이다. 통제 이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衝動)과 그것을 저지하는 사회적 통제 간의 불균형의 결과로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본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의 동기보다, 주어진 상황이 범죄와 일탈 행위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많은 유형의 범죄들은 개인이 기회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상황적 결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통제 이론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환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主張)한다. 즉 통제 이론은 범죄의 증가를 현대 사회에서 범죄의 기회와 범죄의 대상이 늘어난 결과라고 본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소비주의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더 중심적인 것이 되면서 TV, 비디오 기기, 컴퓨터, 자동차와 디자이너가 만든 옷과 같은 도둑의 표적이 되는 물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고용 기회를 갖게 되면서, 집은 대낮에 점점 더 많이 비어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관심이 있는 '동기를 가진 가해자들'은 넓은 범위의 '적당한 목표'로부터 선택을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당국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잠재적인 범죄 상황에 직접 ⓒ개입(介入)하여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목표물 강화'이다. 시내 중심가와 공공장소에 폐쇄 회로를 설치한 것도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통제 이론은 범죄자를 바꾸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는 능력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조치(措置)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통제 이론과 관련하여 목표물 강화는 최근 정치가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범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목표물 강화는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범죄 원인을 다루지 않고 범죄의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사회의 요소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설 보안 서비스, 자동차 경보, 주택 경보, 보안견과 문이 잠긴 거주 지역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범죄의 표적으로 인기 있는 목표물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물 강화는 범죄 행위를 범죄로부터 잘 보호되는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대체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부유한 지역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높이게 되면, 가난하거나 사회적 ⓔ결속(結束)이 부족한 이웃들은 범죄와 비행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17. 위 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때, 그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범죄에 대해 통제 이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②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③ 개인의 사회화와 범죄의 증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④ 통제 이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론으로 확립되었는가?
⑤ 현대 사회에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18. 〈보기〉와 위 글을 종합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통제 이론가 가운데 한 명인 트래비스 허쉬는 '인간은 범죄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기대되는 가능한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하여 범죄에 가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산하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허쉬는 '인간이 사회와의 결속이 강할 때는 규칙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 통제와 순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약 사회와의 결속이 약하다면 비행과 일탈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가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사회와의 결속이 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① 통제 이론은 개인의 성공 의지를 극대화하여 범죄 동기를 소멸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군.
② 현대 사회에서 범죄 증가의 원인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계층 갈등 때문이군.
③ 통제 이론은 범죄가 사회의 책임보다는 각 개인의 인격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군.
④ 통제 이론은 범죄성이 자발적이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군.
⑤ 일탈 행위나 범죄 문제의 여부는 사회적 학습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군.

19.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로 생산되는 차에 운전대 잠금 장치가 의무화되자 신차의 도난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중고차의 도난은 늘어났다.
② 깨진 유리 조각을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일주일 뒤 생활 쓰레기가 더해지고 몇 달 뒤에는 자동차가 버려졌다.
③ 유럽의 어떤 마을에서는 마약 거래와 관련한 불행을 겪은 다음에야 마약 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④ 유리창을 깬 두 사람 중에서 벌금만 내게 된 사람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⑤ 해커들은 단지 다른 컴퓨터의 허점을 찾아내어 침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아본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
② ⓑ :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③ ⓒ : 사이에 끼어듦
④ ⓓ :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⑤ ⓔ : 뜻이 같은 사람이 서로 단결함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끊임없이 의사 결정을 한다.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할 것인가, 점심 식사는 어떤 메뉴로 정할 것인가, 대학에 진학할 때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은 가장 복잡한 사고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데, 결정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흔히 알고리듬과 어림법을 사용한다.

'알고리듬(algorithms)'이란 그에 따를 때 문제 해결을 보장해 주는 규칙들을 말한다. 우리는 알고리듬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각 삼각형의 세 번째 변의 길이는 $a^2+b^2=c^2$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한 공식이 구성된 근거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항상 정확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리듬이 적용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결정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림법(heuristics)'이다. 어림법이란 해결책을 이끄는 정신적 지름길 혹은 어림 규칙이다. 알고리듬과 달리, 어림법은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완전한 해결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문제 해결과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어림법에는 '대표성 어림법'과 '가용성 어림법'이 있다.

㉠대표성 어림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대상이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할 때, 실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대상이 얼마나 대표적인지를 가지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가령 문구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10대 아이들에 의해 여러 차례 도난을 당했다고 하자. 대표성 어림법은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문구점에 들어올 때마다 주인으로 하여금 한층 더 경계를 강화하도록 이끌게 만든다. 이 주인은 자신이 여러 차례 당한 도난 사건의 범인들이 10대 아이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의 범주에 속하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도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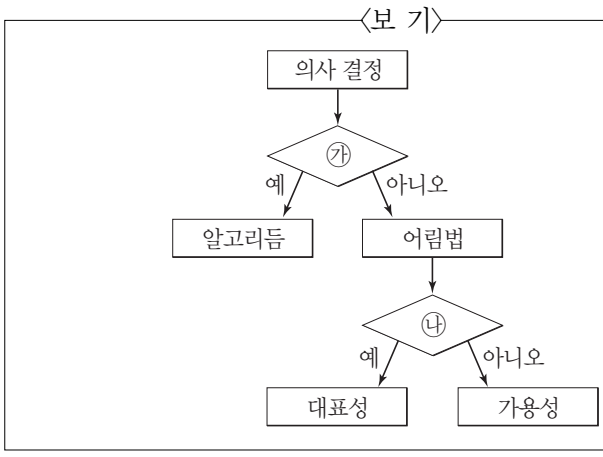
㉡가용성 어림법은 어떤 사건의 빈도나 가능성을 그 사건과 관련된 예를 얼마나 쉽게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발생한 빈도뿐 아니라 얼마나 두드러지는가, 얼마나 최근에 일어났는가, 얼마나 주의를 주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 어림법에 따르면, 쉽게 기억하는 사건은 기억하기 힘든 사건보다 ⓐ과거에 더 자주 발생한 것이기 쉽다고 가정한다. 더 나아가 같은 종류의 사건은 장래에 더 쉽게 발생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강도에 의해 살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도에 의한 사망보다도 당뇨병에 의해 사망하는 확률이 두 배 더 크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극적이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살인과 같은 사건들을 더 잘 기억함으로써 그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어림법은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있다.
② 알고리듬은 규칙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다.
③ 가용성 어림법은 실제로 발생한 빈도수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④ 대표성 어림법은 실제 확률을 계산하기보다는 확률을 추정한다.
⑤ 어림법은 알고리듬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2.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①	문제 해결에 오류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전형적인 사건과 닮았는지를 따지는가
②	수학적인 규칙들을 사용하여 판단하였는가	인상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가
③	특별한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을 추론하였는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특성을 평가하는가
④	문제의 정답을 추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전에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가
⑤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가	결정을 위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는가

23. ㉠,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영희가 동전을 5번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은데, 5번 모두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영희는 6번째 던지는 동전은 뒷면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ㄴ. 2,000 단어로 이루어진 글 속에서 −ing로 끝나는 일곱 글자로 된 단어의 수와 여섯 번째 글자가 n인 일곱 글자로 된 단어의 수를 추정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실제와는 달리 사람들은 여섯 번째 글자가 n인 일곱 글자로 된 단어의 수보다는 −ing로 끝나는 일곱 글자로 된 단어의 수가 더 많다고 추정하였다. 왜냐하면 −ing로 끝나는 일곱 글자로 된 단어를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ㄷ. 수미는 매우 지적이고 말쑥하며 정리정돈을 잘 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녀의 작문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으며, 다소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끼지 않지만 도덕성은 매우 강하다. 은수에게 그녀의 전공이 컴퓨터 공학인지 아니면 인문학인지 판단해 보라고 하였더니, 은수는 컴퓨터 공학과 인문학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떠올린 후 그러한 이미지와 수미의 특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따져 수미의 전공이 컴퓨터 공학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ㄴ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24. ⓐ의 '-에'와 쓰임이 유사한 것은?

① 도서관에 가는 길이다.
② 강가에 정자를 지었다.
③ 아버지는 아침에 출장을 가셨다.
④ 동생은 우유에 밥을 말아 먹었다.
⑤ 범인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첩은 위자사의 서모옵더니, 자사의 명을 받아 구혼코져 왔사오니, 낭자는 깊이 생각하와 쾌히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소저(월영 낭자)가 아미를 나직이 하여 대왈,

[A] "귀인이 수고로이 오시도다. 혼인이라 하는 것은 인륜대사(人倫大事)요, 만복지근원(萬福之根源)이라. 그러하므로 부모 떳떳이 중매를 부르며 종족을 청하여 뜻을 정하고 혼례예물을 보낸 후에 육례(六禮)를 갖추어 맡기시면 삼종지의(三從之義)를 본받아 아내가 되는 것이 여자의 행실이요, 또한 부모 생전의 언약이 없으면 가거니와, 일찍 천지를 여의고 시름이 산 같아 죽고자 하여도 부모의 후사를 이를 자가 없기로 혈혈단신(孑孑單身)이 부지함이요. 또한 부모 생존시에 경성 최시랑 댁과 결혼하여 최씨의 성명이 내 몸에 끼쳐 있고, 첩의 신물 월귀탄은 최씨에게 있는지라. 첩은 곧 최시랑 댁 사람이라. 옛 글에 하였으되, '충신(忠臣)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요, 열녀(烈女)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하였나니, 무릇 사람이 국은(國恩)을 입지 못하나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신하요, 여자는 그 집 혼서(婚書)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집 며느리라. 비록 죽으나 배반할 뜻이 있으리오. 귀인은 허물치 말으시고, 바라건대 첩의 정성을 생각하여 돌아가서 자사께 아뢰어 주옵소서."

안색이 유수 같고 말씀이 춘풍 같은지라. 위자사의 서모가 오래도록 말이 없다가 왈,

"낭자의 말씀이 그른지라. 이제 낭자의 부모 친척이 없고 천리원정(千里遠征)에 최씨 소식을 통할 길이 없거늘, 헛되이 신의를 지키고 평생을 그르게 하니 어찌 아깝지 아니하리오. 또한 위자사는 청춘에 부귀영화 일국에 진동하니, 이제 낭자 결혼하여 빛난 가문에 아름다운 부인이 되어 생남생녀하시며 부귀영화 누리다가 백년해로하시고, 위로 부모의 제사를 받들고 아래로 평생을 온전케 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사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최생을 따르고져 하시나이까. 낭자는 깊이 생각하소서. 불연즉 도리어 대화(大禍)가 있을지라. 후회하여도 믿지 못하리다."

하거늘, 언파에 낭자 변색 대로 왈,

"비록 규중에 있어 배운 것은 없으나 인륜대절은 아나니, 어찌 불측한 말로 감히 욕되게 하느뇨. 그대는 자사의 형세를 자세히 알거니와 나도 명문가의 딸이거늘, 비례(非禮)를 행하라 희롱하니 어찌 방자(放恣)치 않으리오."

……〈중략〉……

시비 급히 들어와 고하되,

"경성 최시랑 댁 노복이 서간을 드리나이다."

하고, 서간과 금함(金函)을 드리거늘, 소저 시비를 명하여 함을 열고 보니 명주 십여 필과 황금 채단에 들었는지라. 소저 미소하고 시비로 하여금 서간을 보라 하니, 그 서간에 왈,

"경성 최생은 두 번 절하고 호낭자 좌하에 올리옵나니 슬프다. 세월이 여류하여 벌써 상공의 삼년상이 지낸 지 오랜지라. 전일 언약을 굳게 지키어 지금까지 실가(室家)를 정치 아니함은 다른 까닭이 없노라. 낭자를 저버리지 아니함이니, 이제 십여 노복과 조그마한 보배를 보내나니, 이것이 소소하나 행장을 차리어 전일 정한 언약을 이룸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낭자는 빨리 돌아와 고대하옵는 마음을 저버리지 마옵소서. 허다한 말씀을 다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낭자 듣기를 다하매 위자사가 보낸 줄 알고 냉소하기를 이윽히 하더니, 시비 등을 불러 왈,

"이 반드시 곡절(曲折)이 있도다."

시비 등이 물어 왈,

"최랑의 서간을 보시고 이렇듯 냉소하시니 어쩐 일이시오니까."

낭자 대왈,

"봉서를 보니 의심이 많도다. 최랑이 나를 데려가려 할진대, 천리원정에 노복만 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서간의 말씀이 심히 허술하니, 의심이 두 가지요. 최랑의 글씨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바이나 글씨 이같이 무식하니, 의심이 세 가지요. 나의 월귀탄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의심이 네 가지요. 최상서는 본대 정직한 군자라, 어찌 원로에 이렇듯 보배를 보내리오. 의심이 다섯 가지라. ㉠이는 위자사가 나를 반드시 속이고져 하는 일이라. 어찌 경솔히 발행하리오."

유모와 시비 등이 이 말을 듣고 탄복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낭자 즉시 봉서를 닦아 그 노복으로 금백 채단을 도로 금함에 넣어 보내니, 그 노복 등이 거짓 하직하고 가는지라.

각설, 이때 자사 묘한 계교를 내어 보내고 내념(內念)에 생각하되,

"내 비밀한 계교는 유식한 남자라도 속을지니, 또한 어린 여자가 어찌 의심할 바가 있으리오."

하고 기다리더니, 문득 노복이 헛걸음함을 듣고 대경하여 발을 구르며 문왈,

"네 어찌 공행하는가."

노복이 가로되,

"여차여차하옵기로 봉서와 금함을 도로 올리나이다."

자사 황망(遑罔)히 떼어 보니 하였으되,

"무식한 자사는 인륜 대사를 모르고 규중절부(閨中節婦)를 핍박(逼迫)하니, 이는 아녀자의 마음이라. 비록 심규에 어린 소견이라도 그대의 소견은 아는지라. 비록 경천위지(經天緯地)와 뇌성 같은 위엄과 소진의 구변(口辯)과 제갈량의 모사(謀事)라도 나를 속이지 못할지라. 이후는 무식한 소견과 용렬한 말을 다시 생의치 말지어다."

하였더라. 〈작자 미상, '월영낭자전'〉

25.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1점]

① 경성의 최생은 월귀탄을 분실하였다.
② 월영 낭자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다.
③ 월영 낭자는 위자사의 서모를 초청하였다.
④ 위자사는 월영 낭자의 속임수에 화를 내었다.
⑤ 최생은 월영 낭자가 경성으로 올라오도록 요청하였다.

2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언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② 혼인의 의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설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자신이 이미 정혼한 처지임을 밝히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에게 선처를 부탁하면서 말을 맺고 있다.

27. 위자사의 행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
1차 시도		2차 시도

① ㉮와 달리 ㉯는 불의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② ㉮에 비해 ㉯에서 위자사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 ㉮에 비해 ㉯에서 월영 낭자의 지혜로움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④ ㉮에서는 말로 회유하려 하였고, ㉯에서는 물질로 유혹하려 하였다.
⑤ ㉮, ㉯ 모두 월영 낭자는 위자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28.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월영 낭자는 허장성세(虛張聲勢)가 심한 사람이로군.
② 월영 낭자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판단하고 있군.
③ 월영 낭자의 태도는 식자우환(識字憂患)에 해당하겠군.
④ 월영 낭자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월영 낭자는 여러 단서로 보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 여기고 있군.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전도 현상은 금속의 온도를 절대 온도 0도 가까이 내렸을 때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으로, 1911년 네덜란드의 카메를링 오너스가 액체 헬륨을 이용해 극저온 실험을 하던 도중에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 수은의 전기 저항이 헬륨의 액화 온도인 절대 온도 4.2도 근방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했다. 이후 많은 다른 금속에서 초전도 현상이 관찰되었다. 초전도 현상은 대개 매우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데 이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한다. 금속마다 임계 온도는 제각각 다르다. 1925년 무렵에는 순수한 금속뿐만 아니라 각종 합금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었다.

초전도 현상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1957년이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존 바딘, 리언 닐 쿠퍼, 존 로버트 슈리퍼는 금속 안의 전자들이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기면서 하나의 쌍을 이루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전자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쿠퍼쌍(cooper pair)'이라고 한다.

전자 둘이 쿠퍼쌍을 이뤄 하나의 입자처럼 움직이면 놀라운 효과가 생긴다. 개별 전자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종의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속의 온도가 임계 온도 아래로 내려가면 전자들이 쿠퍼쌍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때 생기는 쿠퍼쌍들은 똑같은 위상을 가진다. 이는 흡사 시청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모든 쿠퍼쌍들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가진 쿠퍼쌍들은 어지간한 장애물을 만나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 결과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와 같이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는 완전 도체이기 때문에 한번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계속 돌아 초전도체 주위에 일정한 자기장을 지속시킨다.

초전도체가 보이는 중요 특성으로 '마이스너 효과'가 있다. 이것은 외부 자기장이 초전도체 내부를 침투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초전도체 내부에 초전류가 형성되어 그로 인한 유도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을 모두 밀어내기 때문이다. 흔히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공중 부양하는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이스너 효과 때문이다. 마이스너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자기장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광자가 초전도체 안의 쿠퍼쌍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일종의 질량을 갖기 때문이다. 질량이 커지면 광자가 침투할 수 있는 깊이는 역으로 줄어든다. 이는 마치 치어만 빠져 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다 큰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과도 같다.

이러한 초전도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초전도체를 사용한 초전도 자석은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전자석이기 때문에 MRI나 질량 분석기 등에 사용된다. 또 디지털 회로, 휴대 전화 기지국,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 대전(帶電) :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띰. 또는 그렇게 함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서 공중 부양할 수 있다.
② 금속마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는 다르다.
③ 금속의 온도가 임계 온도 아래로 내려가면 전자들이 쿠퍼쌍을 이룬다.
④ 초전도체 안의 쿠퍼쌍은 새로운 전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질량을 갖는다.
⑤ 임계 온도 아래에 있는 초전도체 안에 한번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계속 흐른다.

30. ㉠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헬륨의 온도가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② 헬륨과 수은의 전자가 서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③ 수은의 전자들이 빠져나가 양으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④ 수은 속의 전자들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⑤ 수은의 전자들과 원자핵들이 작용하여 하나의 입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31.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기 부상 열차의 기본 원리는 열차와 선로의 자기적인 반발력으로 열차를 공중에 띄워 추진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열차와 선로에 모두 자석을 깔면 좋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커지므로 보통 열차 바닥에만 초전도 자석을 깔고 선로에는 도체를 설치한다. 도체 주변에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 도체에는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때 유도 전류가 주변에 다시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유도된 자기장은 열차 바닥의 자석을 밀어낸다. 따라서 열차 바닥의 자석과 선로에서 유도된 자기장이 충분히 크면 열차를 공중 부양시킬 수 있다. 보통의 전자석은 전력 손실 때문에 큰 자기장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육중한 열차를 들어 올리려면 초전도 자석이 꼭 필요하다.

① 자기 부상 열차가 공중에 뜰 수 있는 것은 마이스너 효과 때문이다.
② 자기 부상 열차는 외부 자기장이 초전도체 내부에 침투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③ 자기 부상 열차가 계속 떠 있기 위해서는 자석을 저온 상태로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④ 초전도 자석에서 보통의 전자석과 달리 전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쿠퍼쌍의 효과로 전기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⑤ 초전도체를 자기 부상 열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초전도체에 매우 센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6.
배고프거든 바구니 밥 먹고 목마르거든 바가지 물 마시니
이리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또 있나다
남의의 부운(浮雲) 같은 부귀이사 부럴 줄이 있으랴

7.
산중에는 백운(白雲)이 있고 산 외(山外)에는 녹수(綠水)이 있다
구름 찾아 나물 캐고 물가 좇아 고기 낚아
일신(一身)이 한가히 다니니 만사(萬事)이 무심(無心)하여라

8.
봄의난 꽃이 피고 여름에난 녹음이 난다
금수(錦繡) 추산(秋山)에 발간 달이 더욱 좋다
하물며 백운(白雲) 창송(蒼松)이사 일러 무엇하리오

14.
도원(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 김득연, '산중 잡곡(山中雜曲)' 〉

* 홍하(紅霞) : 붉은 노을
* 만동(滿洞) : 골짜기에 가득함

(나) ⓐ앵무새가 펄펄 날더니 동쪽으로 와 임금의 궁궐에 들었네
임금님은 돌아보아 웃고 **금실로 짠 새장**에 넣어 두었네
밤에 잠들면 굽은 난간이 고요하고 낮에 깨면 **먹이가 풍성**하네
붉은 부리로 아침과 낮에 말하고 **푸른 깃은 봄바람을 흔드네**
하루아침 백량대(柏梁臺)*가 불에 탈 때 갇힌 채 재가 되고 말았으니
사람들 모두 그 처음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홀로 그 끝을 슬퍼하네**
어찌 고향 산을 벗하여 **소나무 계수나무 숲에 홀로 우는 것**만 했으리

〈권필, '고의 팔수(古意八首)'〉

* 백량대(柏梁臺) : 중국 한나라 때 무제가 장안의 서북쪽에 지은 누대

(다) 나의 벗 공백공의 호는 어촌(漁村)이다.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났으나 나보다 생일이 늦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아우라 부른다. 풍채가 좋고 인품이 활달하고 또 명랑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는 대과에 급제한 후 높은 벼슬에 올라, 인끈을 매며 필기를 위해 늘 붓을 지니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한가로운 전원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가끔 흥이라도 나면 굴원의 어부사를 흥얼거리기도 하는데, 그 음성이 하도 맑아서 주변 공기까지 정화시키는 것 같다. 또 어떻게 들으면 증자가 상송(商頌)을 읊는 것도 같아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강과 호수 사이에서 노닐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이다.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청아한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이 물욕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떠나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부가 되고 싶었네. 아마 자네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걸세. 하긴 나도 한때 강태공이 주나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멋진 인연을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강태공 같은 성인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네. 또 한때는 엄자릉의 고결함을 흠모했지만, 그는 현인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감히 그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도 나중에야 깨달아 알았다네.
해서 차라리 나는 어부가 되는 꿈을 꾸곤 했다네. 어른 몇 사람과 아이들 몇을 데리고 ⓑ갈매기를 벗 삼아 유유자적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또 어떤 때는 배를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배가 흐르는 대로 맡겨 두기도 하지. 그러다 깨끗한 모래톱을 만나면 닻을 내리고 뭍에 올라 고운 모래를 밟아도 보고, 경치가 좋은 곳을 만나면 양쪽 산과 산 사이를 강물을 따라 그냥 흘러가기도 한다네. ……〈중략〉…… 부귀를 뜬구름같이 여기고 공명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이렇게 세상 밖에서 방랑하는 내가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이익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마는 무리들과 자리를 같이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겉으로는 관복 차림을 하였으나 속뜻은 늘 강호에 두어 노래하며 사는 까닭이라네. 이런 나의 생활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의 말을 다 듣고 기꺼이 그대로 적어 그에게 보내고, 가끔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계기를 삼으려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권근, '어촌기(漁村記)'〉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 현상에 빗대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② 화자가 긍정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과거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④ 자연을 통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창작의 모티프로 삼고 있다.

33. ㈎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대구를 통해 운율감을 표출하고 있다.
②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색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권필은 성격이 자유분방하여 구속받기를 싫어하였고, 속세를 떠나 산야에 머무르면서 시와 술로 낙을 삼으며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삶을 마쳤다. 동료 문인들이 이따금 벼슬자리를 추천했지만 번번이 이를 마다했는데, 한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책에 임명됐지만 윗사람에게 굽힐 수 없다며 사양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이 '고의 팔수'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① 구속받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보아 '금실로 짠 새장'은 화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겠군.
② 화자는 시와 술로 낙을 삼았을 뿐 '먹이가 풍성'한 곳을 원하지는 않았군.
③ '푸른 깃'이 '봄바람을 흔드'는 모습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화자의 삶과 닮아 있군.
④ '홀로 그 끝을 슬퍼하'는 이유는 벼슬자리를 번번이 마다했던 것과 관련되는군.
⑤ '소나무 계수나무 숲에 홀로 우는 것'은 속세를 떠나 산야에 머물렀던 화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군.

35. ㈐의 '공백공'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상을 늘 마음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ㄴ. 출세지향적인 세상을 한탄하며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ㄷ. 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여 주위에서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ㄹ. 자신의 분야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어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6.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모두 낭만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② ⓐ와 ⓑ는 모두 의인화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와 ⓑ는 모두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는 청각적 이미지가, ⓑ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다.
⑤ ⓐ는 부정적 대상으로, ⓑ는 긍정적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안 시차(Binocular parallax)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부터 느껴지는 시차(視差)를 말한다. 인종, 성별, 나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눈은 약 60~70mm정도 떨어져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공간적으로 약간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하나의 물체를 바라볼 때 약간씩 서로 다른 영상을 관측하게 된다.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실제로는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지만, 우리는 두 개의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로 인식한다. 인간의 뇌가 두 개의 영상을 자동으로 합성하여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양안 시차를 통해서 사람은 시력이 증대되며 공간의 퍼짐을 인지하고, 깊이감이나 원근감과 같은 입체감을 보다 완전하게 느낄 수 있다.

[A] 양안 시차는, 손가락을 얼굴 앞에 두고 멀리 있는 볼링 핀을 바라보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눈앞의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감았다 떴다 하면, 볼링 핀의 위치가 달라진다. 즉 왼쪽 눈으로 보았을 때보다 오른쪽 눈으로 보았을 때, 볼링 핀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손가락 뒤에 있는 볼링 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번에는 손가락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오른쪽 눈으로 보았을 때, 손가락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3D 영상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한 것으로, 미리 시차를 준 오른쪽 눈용과 왼쪽 눈용의 두 영상을 화면에 번갈아 가며 차례로 겹쳐서 표시한다. 이 영상에서 오른쪽 눈용의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 왼쪽 눈용의 영상은 왼쪽 눈으로만 보게 하면, 뇌가 시차가 있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본 경치로 착각해서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듯이 평면인 TV에서도 영상을 입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3D 영상의 오른쪽 눈용 영상은 반드시 오른쪽 눈으로, 왼쪽 눈용의 영상은 반드시 왼쪽 눈으로 보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반대쪽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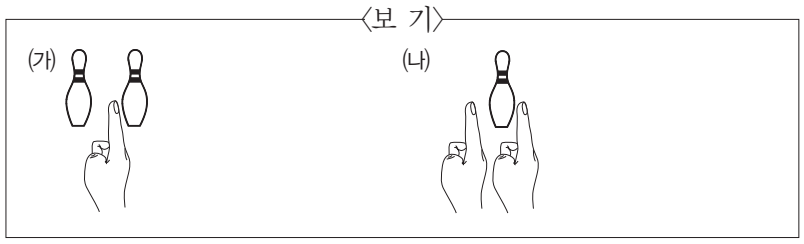
현재 시중에 나온 셔터 방식의 초고화질 3D TV는 렌즈 부분에 액정을 사용한 전용 3D 안경을 써서 3D 영상을 보는 셔터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즉 오른쪽 눈용과 왼쪽 눈용의 영상 프레임을 고속으로 교차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오른쪽 눈용의 영상과 왼쪽 눈용의 영상 프레임의 교체는 120분의 1초에 1번 정도의 빠르기로 이루어지는데, 3D TV와 안경은 적외선 통신 장치를 통해 이 움직임을 일치시킨다. 즉 TV 화면에 오른쪽 눈용 영상 프레임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안경의 왼쪽 눈의 액정이 어두워져 왼쪽 눈의 시계를 막는 방식으로 오른쪽 눈용 영상 프레임은 오른쪽 눈에만, 왼쪽 눈용 영상 프레임은 왼쪽 눈에만 보이는 것이다.

3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3D TV는 흑백 영화보다 컬러 영화에서 더 효과적이다.
② 오른쪽 영상과 왼쪽 영상의 차이가 커질수록 입체감은 극대화된다.
③ 3D 영화의 영상은 일반 영화의 영상보다 프레임의 교체가 늦을 것이다.
④ 맨 눈으로 본 3D 영화는 초점이 맞지 않은 듯한 영상으로 보일 것이다.
⑤ 셔터 방식의 3D TV는 3D 영상 전용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38. 〈보기〉는 [A]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① (가)는 초점을 손가락에, (나)는 초점을 볼링 핀에 두었다.
② (가)의 왼쪽에 보이는 볼링 핀은 왼쪽 눈으로 본 영상이다.
③ (나)의 손가락은 실제로 하나인데도 뇌가 2개로 인식한다.
④ (나)의 오른쪽에 보이는 손가락은 왼쪽 눈으로 본 영상이다.
⑤ (가)와 (나)에서 확인되는 양안 시차 때문에 입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K씨와 그의 아내는 모처럼 휴일을 맞아 영화 '△△△'를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 영화관의 한 상영관에서는 일반 HD로, 다른 상영관에서는 셔터 방식의 3D로 상영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입장료를 지불하고 3D 상영관에 입장해 관람석의 중간 왼쪽 편에서 관람하였다. 그의 아내는 화면이 환상적이었다고 만족한 반면, 한 쪽 눈의 시력이 안경을 끼고 0.6, 다른 한 쪽 눈은 실명 상태인 K씨는 영화를 거의 볼 수 없었다.

① 아마 K씨가 실명한 눈은 왼쪽 눈일 거야. 오른쪽 관람석에서 보았으면 제대로 볼 수 있었을 거야.
② 좋은 눈의 시력이 안경을 끼고도 0.6밖에 안 된다면, 좀 더 앞쪽에 앉아서 관람했으면 좋았을 거야.
③ 3D 안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 없어. 가끔 3D 안경과 3D 영화 화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더군.
④ 일반 안경 위에 3D 안경을 또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3D 안경에도 도수를 넣으면 좋을 텐데.
⑤ K씨는 3D 영화를 애당초 볼 수 없는 사람인데 3D 영상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관람했으니 입장료만 버린 셈이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일제 강점기, 간도에 갔던 창선은 높은 세금과 부역 때문에 고향인 창리로 다시 돌아왔지만, 바닷가 마을 창리가 공장 지대로 변해 있어 크게 당황한다. 구룡리로 이주한 형의 집을 찾아간 창선은 형에게서, 마을 사람들이 비료 회사에 의해 강제로 마을에서 쫓겨 난 사정을 듣게 된다.

"이리로 옮기기만 하문 여게다 인천만한 항구를 만들어 주고, 시장, 학교, 무슨 우편소니, 큰길이니 다 해 준다고 떠벌리고……. 또 야단스러운 지도를 들고 와서는 구룡리를 가리키며 ㉠<u>제2의 인천</u>을 보라구…… 산 눈깔 빼먹을 놈들이야……."

"그래서요?"

"그래도 이천 명이나 되니 그리 얼른 떠나 내겠나. 해서, 구룡리에다 창리만한 설비를 해 주면 간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한 집이라도 일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가면 그 사람을 때려죽인다고 하고 딱 버티고 있었네. 했더니 이놈들 좀 보게. 관청까지 껴들어 가지고 아주 능청스럽게 이전만 하면 창리보다 나은 항구를 만들어 주게 한다구 떡 먹듯이 말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마음을 놓았더니 글쎄 저 놈들이 그래 놓고 뒤로 한 사람씩 팠네 그려……."

"파다니요?"

"하기야 글쎄 패우는 놈이 병신이지. 저 우물 옆집 개수경이 있지 않나. 사람이 워낙 먹통인데 저놈들이 그걸 알고 먼저 그리로 꾀꾼을 보냈네 그려. 그래 그놈이 커다란 봉투에 무엇을 수복이 넣어서 맡기며, 장차 장자가 되는 봉투라고……, 그러니 구룡리로 옮기기만 하면 그 봉투를 줄 텐 즉 우선 잘 간수했다가 떼어보면 알조가 있다구……."

"무슨 봉툰데요. 사실이던가요?"

"무얼 사실이야? 엊그제야 떼어보니 십 원짜리 한 장인가 들었더래……. 그래도 그 바람에 개수경이 신이 나서 동네 약속을 깨뜨리고 먼저 옮겼네 그려. 동네 사람에게 맞아죽을 심 쳤겠지. 그러나 동네터에 그걸 죽이나 어쩌나…… 했더니, 구수한 풍설에 뜨여서 한 집 두 집 ㉡<u>항구 시설</u>도 해 주기 전에 그만 다 옮겨버렸네 그려!"

"집 값은 다 받았겠지요?"

"그야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하나. 고기가 잡혀야 말이지……. 워낙 금년은 어산이 말 아니네."

"아주 안 잡힙니까?"

"아따, 이 포구를 못 봤나……. 축항인지 무언지 해 준다던 게 그 해논 꼴만 좀 보게. 포구란 게 ㉢<u>쇠통 큰 집 마당</u>만밖에 더 안되네. 겨우 한 발만한 낮은 방축을 쳐놓았을 뿐이니 거게 무슨 배를 매겠나. 일 년도 못 돼서 벌써 마흔 다섯 척 어선 중에서 아홉 척이 마사졌네*. 저 유복이와 모래 언덕집은……."

"그건 들었습니다만 사람까지 상패가 났다니……."

"글세 여보게. 예서 십 리밖에 안 되는 서호에 가서 받아오면, 명태 한 바리에 스무 냥(사 원)은 더 주어야 하네. 한데 또 서호 다니는 길은 험로가 돼서 아낙네들이 많이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수렛길이 없어서 수레도 못 다니고…… 게다가 해풍이 심해서 고기받이꾼이 얼마를 얼어 죽을지 모르네. 그래 기수 없이 회사에 말을 했건만 영 막무가내구만."

……〈중략〉……

창선이는 한심한 생각이 더쳐올 뿐이었다. 제 고향이라고 그리워하였고, 제 친족이라고 찾아는 왔으나 생각하던 바와는 아주 딴판이었다. 조선 가면 아무 일이라도 해 먹으려니 했으나 막상 와 보니 그 '아무 일'이란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부대 일궈 먹을 땅도 없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고, 힘을 쓰려도 쓸 곳이 없고, 고

[A] 기도 잡아먹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대대로 전하여 온 손익은 일, 맛들인 일은 아무데서도 얻어 만날 수 없고 그저 눈이 멀개서 산송장이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든 옛일이 나그네와 같이 밀려간 자리에 낯선 새 놀음판(공장)이 범접하기 어려운 폭군처럼 도사리고 들어앉아 있었다. 검은 굴뚝이 새 소리를 외치고, 눈 서투른 무서운 공장이 새 일꾼을 찾으나 그것은 너무나 자기 몸과 거리가 먼 것 같았다. 그만큼 창선이는 아직까지도 그저 옛일에 대한 애착만이 뿌리깊이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디 가고 꿈도 안 꾸던 뚱딴지같은 일과 일터가 제 맘대로 벌어져 있고 게다가 그것은 게트림을 하면서 턱으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망설이는 ㉣과도기의 공포와 비애가 무시로 가슴을 쑤시었다.

……〈중략〉……

이 고장 주민들은 뒤를 이어 상투를 자르고 비료 회사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은 아무나 함부로 써주는 것은 아니었다. 힘꼴 세고 뼈대 굵고 젊고 억대우*같고 미욱스럽게 생긴 사람만이 뽑혔다. 그리고 거기서 까불려 난 늙고 약한 사람들은 개똥갈이*나 부쳐먹고 잔고기 나 부랭이나 잡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은 보따리에 가장 집물을 꾸둥쳐* 지고 이고 영원 장진으로 떠나갔다. 화전이나 일궈 먹을까 하는 것이었다.

창선이도 마침내 공장으로 들어가리라 결심하고 감발을 치고 직공 시험을 치러 갔다. 직공 시험이라야 별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려니까 순전히 근력 다루기였다. 체대*와 손발을 훑어보고 커다란 모래섬을 들려보고 하더니 나중은 손바닥을 벌리라 하고 거기에 털솔 같은 데 잉크를 묻혀 가지고 탁 치니까 손바닥에 푸른 글자가 찍혀졌다.

가만히 들여다보려니까 그것은 분명 ㉤소우(牛) 자였다. 사람에게 소우 자가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벙벙해 있으려니까 감독인지 십장인지 한 우둥퉁한 사나이가 헤벌쭉이 이빨을 드러내 놓으며

"좋다, 일등이다. 내일부터 오너라."하고 턱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부터 창선이는 상투를 자르고, 감발* 치고,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되었다.

〈한설야, '과도기'〉

* 마사지다 : '바서지다'의 함경도 사투리
* 억대우 : 덩치가 매우 크고 힘이 센 짐승이나 사람
* 개똥갈이 : 개똥 거름을 주어 밭을 갊
* 꾸둥쳐 : 무엇을 한데 꽁꽁 묶거나 싸서
* 체대 : 몸의 크기
* 감발 : 발감개 또는 발감개를 한 차림

40. 위 글에 나타난 갈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이념 문제와 관련된 개인과 개인의 갈등
ㄴ. 생존 문제와 관련된 집단과 집단의 갈등
ㄷ. 신분 상승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의 갈등
ㄹ. 삶의 방식과 관련된 개인과 사회의 갈등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입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② 작중 인물의 성격을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시각과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작중 인물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작중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42. 위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식민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현실 생활로부터 포착하여 그것을 현실성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군.
② 어촌 마을이 공장 지대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군.
③ 주인공이 결국 외부의 억압에 굴복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④ 귀향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는 마을의 변화 과정을 보다 세밀하고 차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서이겠군.
⑤ '창리' 주민이 '구룡리'로 이주하는 것을 통해 결국 외압에 대한 대항보다는 내부의 결속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군.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회사가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동원한 말이다.
② ㉡ : 마을 사람들이 이주의 조건으로 내건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된다.
③ ㉢ : 창리의 규모를 알게 해 주는 비유적 표현이다.
④ ㉣ :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용어이다.
⑤ ㉤ : 창선과 마을 사람들이 처할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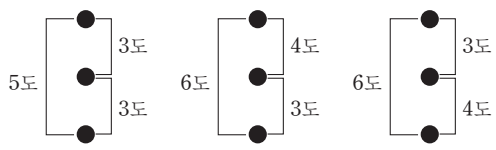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에서 함께 소리나는 음들은 서로 합쳐져서 화음이라고 부르는 특정 감각을 낳는다. 그러나 이 결합에 관한 우리의 정서적 태도는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음의 어떤 결합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기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의 경우를 ㉠협화음과 불협화음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음악에서 동시적 음들의 협화음적 결합은 몇 개가 가능한가? 음정에 따른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 증음정*과 감음정*을 피하고, 음계상 이웃하는 두 음을 함께 소리 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동시적인 음들의 모든 결합은 협화음이다. 서양 음악의 7음 체계는 증음정과 감음정을 단 하나씩 포함하므로, 그리고 음에는 어느 음의 음계상의 이웃음보다는 비이웃음이 더 많으므로, 개연성으로 보면 협화음이 불협화음보다 크게 우세한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이다. 어떤 소리가 협화음이 되려면 음계상의 어떤 이웃음도 함께 일어날 수 없다는 조건은 가능한 협화음의 수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문제를 공간에서의 점의 문제로 바꾸어 보자. 일련의 점에 1부터 7까지를 되풀이하면서 숫자를 매긴다고 가정하고, 서로 이웃하는 두 점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가 서로 달리 매겨진 점들의 그룹을 찾아보자. 1에서부터 보면, 2는 제외되고, 1-3이 가능하다. 1-3이 뽑히면 4는 제외되고, 1-3-5가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선택되면, 6이 제외된다. 1-3-5-7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7과 1은 이웃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밖에 또 다른 가능한 결합으로서 1-3-6과 1-4-6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전부이다. 어떤 수를 출발점으로 하던 간에, 그룹의 패턴은 여전히 같을 것이다. 예를 들면, 2-4-6, 2-4-7, 2-5-7이다.

이것을 음악적으로 바꾸어 음정으로 표현하면, 서양 음악에는 다음과 같은 단 3개의 협화음적 음 배합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첫째 패턴의 두 개의 3도 중에서 하나는 장음정*, 다른 하나는 단음정*이어야 한다. 만약 양쪽이 모두 단음정이거나 장음정이라면, 그러한 결과로 생기는 5도는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각각 감5도 혹은 증5도, 즉 불협화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왜 어떤 음정의 관계는 협화음으로 그리고 다른 음정의 관계는 불협화음으로 판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에서 어떤 소리를 불협화음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그 내적 긴장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을 음악이라고 부르는 음들의 움직임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때 불협화음은 음악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것은 불협화음의 긴장감에 어느 정도 명확한 방향을 부여하여 음 움직임 전체 목적에 한 몫을 하게 된다.

* 증음정 : 완전 어울림 음정이나 장음정을 반음 넓힌 음정
* 감음정 : 완전 어울림 음정이나 단음정을 반음 낮춘 음정
* 장음정 : 장조(長調)를 이루는 음정으로 장조에서 4, 5, 8도(度)를 제외한 기타 음정
* 단음정 : 장음정을 반음 낮춘 음정

44.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음의 형성 원리
② 화음에 따른 음악의 분류
③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역할
④ 화음에 따른 인간의 정서 반응
⑤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발전 방향

4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 음으로 된 협화음은 3개의 패턴으로 한정된다.
② 음이 결합할 때 협화음보다는 불협화음이 되기 쉽다.
③ 음들의 결합은 듣는 이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④ 불협화음의 긴장감은 음의 움직임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⑤ 두 음의 결합보다는 세 음 이상의 결합이 협화음을 만들기에 유리하다.

4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관점에서 '협화음'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서양 음악 1000년의 역사는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상호 관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흐,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에서 불협화음은 소리의 유일하게 진실한 상태인 협화음의 이탈, 혼란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 협화음은 모든 불협화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바그너나 드뷔시 이후에는 불협화음이 오히려 가장 쾌적한 소리로 구현되기도 하였다. 이제 소리들 간의 관계는 내적 긴장감이 높고 낮은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불협화음의 관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① 협화음이란 모든 불협화음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② 협화음이란 불협화음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동기이다.
③ 협화음이란 음들의 수직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식이다.
④ 협화음이란 소리의 내적 긴장감이 최소화되는 불협화음이다.
⑤ 협화음이란 음들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동적 요소이다.

47.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대립 관계의 유형에는 두 단어 사이에 중립 지역이 있는 '반의어'와 그렇지 않은 '상보어', 그리고 방향상의 대립이나 맞선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대립을 나타내는 '방향 대립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협화음 : 불협화음'의 관계는 상보어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① 출석 : 결석
② 동쪽 : 서쪽
③ 덥다 : 춥다
④ 가다 : 오다
⑤ 길다 : 짧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한글 맞춤법은 본문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기본 원리는 제 1장 총칙에 나타나 있다. 총칙 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조항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	㉰
표준어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는 표준어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비표준어, 즉 사투리는 맞춤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는 표준어로 인정하여 선택한 말은, 그 발음대로 충실히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표음 문자인 한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다. ㉰는 표준어이고 또 발음대로 기록한 철자라도, 어법에 맞지 않고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독서의 능률과도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와 ㉰의 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葉[나뭇잎 엽]'을 뜻하는 [나문닙]이라는 우리말을 ㉯에 따라서 소리대로 적으면 '나문닙'이 되고, ㉰에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나뭇잎'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마치 "'나문닙'으로 적되, '나뭇잎'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상호 모순된 규정이 되고 만다.

원래 '소리대로'라는 말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당시 맞춤법을 정할 때는 그 이전 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인 한글 표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 당시의 실제 발음과는 달리 그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긔ᄎᆞ, 샤회, 녀ᄌᆞ, 엇개, 쌀내' 등과 같이 적는 경우가 많았다. 총칙의 '소리대로'라는 말은 이러한 관습적 표기법을 버리고, 이 규정을 통해 현실 발음대로 '기차, 사회, 여자, 어깨, 빨래' 등과 같이 쓰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이 규정은 '한글'이라는 문자가 표음 문자이므로 "실제 말하는대로 적는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원칙적 선언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 원리의 핵심은 이 '어법에 맞도록'에 들어 있다. 사실 "어법에 맞도록 적되, 소리대로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가 더 타당할 정도로 '어법'의 실제적 비중은 크다. 여기에서 '어법'이라는 말은 '원형(原形)을 밝혀' 정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한번 정해진 철자는 혹시 다르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언제나 일정하게 적는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흘글, 흑또, 흥만'과 같이 적으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흙'이 '흘, 흑, 흥'으로 달리 나타나게 되어, 읽는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흙을, 흙도, 흙만'과 같이 '흙'을 고정시켜 적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개념이 같은 표기로 적히면 독서의 능률이 크게 향상된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므로 발음대로 적기에 무척 편리한 글자이다. 그러나 적기에 편리한 것이 읽기에도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한글 맞춤법은 [㉠]

따라서 한글 맞춤법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이 지나치게 적용되지 않도록 '소리대로'라는 원칙이 끊임없이 견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총칙 제1항의 끝에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여유를 둔 것이다. 한글 맞춤법 개별 조항들이 이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현행 한글 맞춤법을 훨씬 더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여 어느 하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③ 두 현상의 차이에 주목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④ 대상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를 분석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⑤ 이론의 변화 과정을 제시한 후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9.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과제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A]와 [B]에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른 표기법을 각각 골라 보자.

[A] '떡볶이, 떡복기, 떡볶기, 떡뽂이'
[B] '깍두기, 깎두기, 깍뚜기'

① [A]에 제시된 단어들의 두 번째 음절은 단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볶다'를 연상할 수 있는데, '볶-'은 [보까], [보끄면] 등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볼 때 ㉰의 원칙에 따라 '볶-'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
② [A]의 '볶다'를 [뽁따]로 발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의 원칙에 따라 '뽁-'을 원형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③ [A]에 제시된 단어들의 세 번째 음절은 '먹이'와 '먹기'와 같이 유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의 원칙에 따라 '-기'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④ [B]에서 '깎다'를 연상할 수도 있지만 '칼 따위로 물건의 표면을 얇게 도려내다'라는 '깎다'의 의미로 볼 때 ㉰를 고려하여 '깍'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⑤ [B]에서 ㉯를 고려할 때 두 번째 음절을 '뚜'로 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수, 갑자기'를 '국쑤, 갑짜기'로 적지 않는 사례로 보아 ㉰를 고려하여 '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50.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읽는 사람 쪽에 더 비중을 둔 셈이다.
② 한글 표기의 편의성을 강화한 셈이다.
③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최우선시한 셈이다.
④ 현행 어법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한 셈이다.
⑤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셈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